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05
----------	------

발의연월일 : 2025. 4. 14.

발 의 자 : 김기표 · 박희승 · 전재수
권철승 · 문진석 · 위성곤
부승찬 · 안규백 · 김영호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수사 절차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피의자의 방어권과 형사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공판정 중심의 직접 심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음.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제312조제1항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제2항은 삭제함으로써 당사자주의 및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였음.

「군사법원법」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개정내용이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는 반영되지 않아 군사재판과 일반 형사재판 간에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

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고, 군사재판의 절차적 정당성과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365조제2항 삭제 등).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 ① 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6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u>군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한 진술에 따라 인정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 성립의 진정(眞正)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혀 있음이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고, 그 조서에 적힌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을 때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u></p> <p>③ ~ ⑥ (생략)</p>	<p>제365조(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조서) ① <u>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